WEEKLY IBK 경제브리프
(699호) 2020-03-04
IBK경제연구소

美연준의 긴급 구원 등판

◈ **美연준**이 정례FOMC가 아닌 **긴급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**(1.50~1.75 → 1.00~1.25%)

◈ **코로나19사태 여파에 따른 조치**로, 추가 확산 정도에 따라 **양적 완화 재개, 기준금리 추가 인하** 등도 예상

◈ **향후 글로벌 공조화된 통화완화가 기대**되며, 최근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해 온 **신흥국들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전망**
- (ECB·BOJ) 추가 완화 의지 있으나, 실제적 효력 수단은 제한적
- (한국은행) **연내 최대 2차례까지 금리인하 선택** 가능

□ **(현황) 美연준이 긴급FOMC*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'08.10월 이후 처음** * 과거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 등 이례적인 상황에서 결정되는 회의

구 분		과거사례	인하폭	구 분		과거사례	인하폭
'08년	1월	美증시 폭락	△0.75	'01년	1월	IT버블 붕괴	△0.50
	10월	리먼브라더스 파산	△0.50		4월	美경기침체	△0.50
'07년	8월	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	△0.50		9월	9.11테러	△0.50

○ (연방기금금리) 美FOMC회의 투표위원(10명) 전원일치 찬성으로 50bp 인하한 **1.00~1.25%로 결정**(3.3일)

⇒ 이번 금리인하는 경기부양보다는 **금융시장 안정 목적으로 판단***

* ①금융기관의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고 ②이미 美국채10년 금리가 1%를 하회할 정도로 낮은 수준 ③2% 내외의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유지중이라는 점에 근거

□ **(인하 배경) 코로나19 리스크가 ①전세계로 확대中 ②美경제에 악영향 초기단계 진입 판단과 더불어 ③글로벌 통화완화 관련 정책공조**

① **(코로나19 리스크 확대)** 코로나19가 다수의 국가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조치

② **(美경제 안정화)** 미국내 확진자수가 급증하며 경제주체 심리불안 등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권에 초기 진입했다고 판단해 선제 대응

※ 미국 확진자수(명) : 1(1.23) ⇒ 11(2.3) ⇒ 35(2.22) ⇒ 53(2.25) ⇒ 64(3.3) ⇒ 118(3.4일 13시)

③ **(G7 정책공조 일환)** 최근 주요국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가운데, G7 컨퍼런스콜 및 긴급성명을 통해 정책공조 합의(3.3일)

※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·재정·통화 등 모든 정책 도구를 사용,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

- 中 대출금리 인하(2.20일), 日 2주간 5,000억엔 국채매입(3.3일), ECB 양적완화(QE) 확대시행 예상(3.12일), 韓 4월 기준금리 인하 예상(4.9일)

('20.3월)	미 국	유로존	중 국	한 국
기준금리	1.00~1.25%	0.00%	4.05%	1.25%
비 고	0.5%p↓ (3.3일)	QE 확대시행(e) (3.12일)	0.1%p↓(2.20일) 대출금리 기준	0.25%p↓(e) (4.9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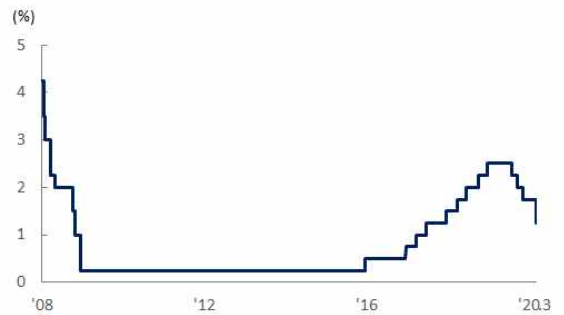
□ (영향) 美연준의 금리인하로 오히려 코로나19의 경제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공포심을 더욱 유발하여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

○ **(주식)** 전염공포 확대 및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높아지며 **주식시장 급락**

※ 주가 낙폭(pt) : 다우존스(전일대비 △2.9%, 올해 고점대비 △12.3%)
S&P500(전일대비 △2.8%, 올해 고점대비 △11.3%)

○ **(채권) 美국채 10년물 수익률**은 사상 최초로 **1%를 하회**(0.972%, 3.3일)

< 미국 기준금리 >



주 : 상단 기준, 자료 : Fed

< 다우존스 및 S&P500 주가 추이 >



자료 : Bloomberg

(작성자 : 경제금융팀 대리 김상유 sykim1111@ibk.co.kr / ☎02-729-6196)